고령층 취업, 청년층 6배 속도로 증가

통계청, 농림어업 · 자영업 줄고 상용직 · 전문직 확대… 전북 고용 구조 변화 뚜렷

전북의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보다 6배 빠른 속도로 늘며 지역 고용 구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산업과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상용직과 전문 · 사무직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37만2,000명으로 올해 1월(30만2,000명)보다 6만7,000명(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 · 30대 취업자는 1만1,000명(4.6%) 증가에 그쳤다. 월평균 증가 속도로 환산하면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약 6배 빠른 셈이다.

전체 취업자 수는 10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4.7%로 0.4%포인트 하락했으며, 남성 취업자는 7,000명 늘어난 54만2,000명, 여성 취업자는 1만7,000명 줄어든 45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9%로 변동이 없었다.

산업별로는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이 1만9,000명(25.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도 7,000명 늘었고, 광공업은 1천 명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1만7,000명, 도소매 · 숙박 · 음식점업은 1만4,000명, 건설업은 6,000명 감소하며 전통 산업의 고용 축소가 이어졌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 전문가가 1만5,000명, 사무종사자가 1만4,000명 증가했으나, 서비스 · 판매종사자는 1만8,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5,000명 줄었다. 기능 · 기계조작 · 조립 · 단순노무직도 5,000명 감소했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상용근로자가 3만4000명(7.3%)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1만명), 일용근로자(-4,000명), 자영업자(-2만3,000명), 무급가족종사자(-7,000명)는 감소했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만3,000명 줄었지만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큰 변동이 없어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37.3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전북 노동시장이 인구 고령화 속에서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림어업과 도소매 · 숙박 · 음식점업의 인력 감소는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층 취업 기반 약화와도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험과 숙련을 살리면서 청년층의 산업 적응을 지원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외국인 특화 생활 · 금융 플랫폼 '브라보코리아'가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 확대에 나선다.

외국인 특화 플랫폼 'Bravo Korea'

전북은행, 틱톡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은행이 운영하는 외국인 특화 생활 · 금융 플랫폼 '브라보코리아(Bravo Korea)'가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 확대에 나선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4일 틱톡코리아(대표 매티 린)와 글로벌마케팅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틱톡의 글로벌 콘텐츠 네트워크와 전북은행의 금융 · 생활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 외국인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틱톡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브라보코리아' 회원가입 마케팅 △브랜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 · 오프라인 공동 이벤트 기획 △해외(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신규 마케팅 컨설팅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 공유 및 연계 협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틱톡플랫폼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믿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를 강화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브라보코리아' 관련 콘텐츠를 제작 · 확산해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등 주요 국가로 인플루언서 협업 범위를 확대해 해외 거주 잠재 고객층과의 접점도 넓힐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틱톡코리아와의 협력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바이럴 확산과 외국인 고객 유입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미국 진출전략 설명회' 참가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진출전략 설명회'를 9월 19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KBIZ홀(지하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미국 현지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인 △조만선 한미은행 수석본부장 △박기홍 허브천하보험 회장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 △제니 리 가든그로브(Garden Grove)시 국장이 분야별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투자 환경 및 금융 관련 규제 △보험을 활용한 인사 · 투자 리스크관리 △한국과 미국의 법 · 제도 비교 및 대응전략 △가든그로브(Garden Grove)시의 기업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행사 · 이벤트 행사 신청접수 페이지(https://kbiz.kr/c0)에서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은 9.12(금)까지이다.

/오상근 기자

이승돈 농진청장, 취임 첫 행보 '토마토뿔나방' 방제 현장 점검

AI · 스마트농업 · 기후위기 대응 · 식량자급률 제고 등 5대 과제 제시

제33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한 이승돈 청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전남 담양의 한 친환경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검역 해충 '토마토뿔나방'의 방제 상황을 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토마토 농가에 친환경 방제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가을 작기를 앞두고 추가 지원에 나선 상태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뿐 아니라 고추, 가지, 감자 등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 검역 해충이다. 발육 최적 온도가 30도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급속히 번식하며, 유충이 줄기와 과실을 파먹어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 청장은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 중인 교미교란제 · 천적 활용 방제법 등 친환경 기술을 안내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신임 청장의 정책 기조를 드러낸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첨단기술의 발전이 농업의 전환기를 이끌고 있다"며 "농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현장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향후 농촌진흥청 운영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AI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이다. 이 청장은 중소농도 활용 가능한 맞춤형 스마트온실 모델과 저비용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개방형 온실통합관리 플랫폼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자급률 제고다. 그는 "고온 · 가뭄에도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농업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과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 ·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농업 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 · 보급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밭작물 전(全) 과정 기계화를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 · 방제 기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조성이다. 농작업 재해 예방, 취약계층 농업인 안전관리, 지역 특화작목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치유농업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섯째, K-푸드 수출과 K-농업기술 세계화다. 수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FIA) 확대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오상근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동행면접의 날' 개최

구인 애로 해소 · 구직자 교육 · 현장면접 · 채용 까지 원스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는 오는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입주기업의 구인 애로 해소와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식품제조업 생산인력 채용행사인 '동행면접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 모집, 필수 · 소양 교육, 현장 동행면접을 연계하는 원스톱 채용 프로그램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사에는 김치 생산 전문기업 '나리찬'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나리찬(주)는 한식 세계화를 선도하며 2020년 7월 약 1,700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준공하고, 2023년에는 35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참여자는 행사 당일, 식품기업 위생안전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받은 뒤 주최 측과 함께 면접장으로 이동해 동행면접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직후 면접이 진행되므로 현장 채용 가능성이 높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면접 참여자에게는 면접비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 구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의 신중년 취업 희망더하기사업과 연계해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 지원, 성공정착 지원금(50만원) 등 단계별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주 · 완주 · 익산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해 행사 당일 이동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신재생에너지 혁신거점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및 기관을 18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군산 새만금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지원, 산 · 학 · 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소한 종합지원센터는 총 5층 규모로 1층에는 기업전시실과 휴게실, 2층에는 회의실 및 구내식당, 3층에는 운영사무실과 세미나실이 위치하며, 4~5층은 입주기업 공간으로 조정되어 있다.

이번 입주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M70(연구개발업), M72(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에너지 및 연관 산업 분야 기업 · 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입주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최대 7년간 입주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